

# 주체조선의 불가항력 - 일심단결

공화국의 역사에 또 한층의 자랑스러운 년표이 아로써겨졌다.

누구나 승리자의 크나큰 공지와 행복속에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숙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지켜보는 속에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경축행사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사시로 펼쳐보인 특색있는 공연이 진행되어 경축의 밤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게 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할 총성과 애국의 일편단심이 땀동치는 공연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으며 령도자를 우리러 참가자들이 열광의 환호를 련속 터치는 만수대기숙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힘을 과시하는 뜨거운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공화국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인 힘이다.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는 단결로 개척되었으며 대를 이어 단결의 위대한 힘으로 승승장구하여온 긍지높은 행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단결이 있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할수 있었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전승의 기적을 환희롭게 안아올수 있었으며 적대세력들의 가슴괴는 암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고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이 가진 이 절대적 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마련해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일찍기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시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셨었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전기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는 위대한 지론을 내놓으실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일심단결은 아버지이수령님께서 의탁한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공화국의 고귀한 전통, 영원한 주춧돌로 될수 있었다.

가를쳐질한 전화의 나날 강런도의 변동농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대답은 령도자

와 인민이 어떻게 하나로 굳게 뭉쳐 침략자들을 쳐물리치었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준다.

주체39(1950)년 10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밤 전선길을 달려시다가 어둠속에서 복행길에 오른 인민들을 만나게 되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행의 맨앞에서 탈구지를 끌고가는 로인걸음으로 다가서시여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미처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보지 못한 로인은 북쪽으로 간다고, 인민군대와 함께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거칠없이 대답하였다.

이 관리통에 김일성장군님을 왜 찾아가느냐고 하시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물음에 로인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 쟁에서 이긴다고 힘주어 대답 올리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 승리가 기다

는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굳게 뭉쳤기에 공화국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수 있었고 전후에는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고 하던 복구건설을 단 몇해만에 해체되고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야 했던 공업화를 천리마를 타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이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었다.

1990년대중엽 공화국은 민족의 내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박책동 등 전대미문의 격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엄혹한 시련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굳결강화의 길을 걸으셨

으시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꼭잡고 꿇기밭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전제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더욱 굳게 결속시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기적을 안아오게 하였다.

주체92(2003)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그리워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은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하신 뜻깊은 교시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고귀한 명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시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지켜야 하는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자리잡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어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고쳐들어있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이다.

인민을 위하여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걸, 멸사복무의 걸은 사나운 풍랑도,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의 폭염도,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병마도 막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모시듯이 인민을 위해야 한다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신 숭고한 인민관, 군인들을 찾아 적의 총구가 도사린 최전방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는 병사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러 병을 앓는 사람들과도 때때로 이 드나드는 약국에도 나가시였던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은 천만민들의 심장을 령도자에 대한 총정으로 더욱 뿔뿔이 벌어졌고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더 반석같이 다지는데로 이어졌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방위대전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중산과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있으며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 건설부문에서는 올해 계획된 주체화대공사와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엄혹한 도전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굳게 자리잡고있기에 그이의 구상은 곧 인민의 꿈과 리상이 되어 현실로 펼쳐지고 그이의 결심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되어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안아오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원천이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것이다.» «김정은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지향을 함께 하고 그 길에서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루어진 혼연일체야말로 공화국의 건설부름에서는 올해 계획된 주체화대공사와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제 인민이 하나의 사상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떠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짐에 대하여 지적 하시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위에 일심단결의 세 력사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더욱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하지 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 일떠세울것이다.

리은심



지금 날로 우심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현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들불과 산사태, 폭우와 큰물예 의 태수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재해성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들이닥치는 자연의 판관으로부터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있다.

자연재해를 막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쾌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세오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국토관리부를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하시었다.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국가경제관, 근로단체 책임 일꾼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건설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켜나가는 것을 국토관리부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방향, 총적과업으로 제시해주시었다.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담화에는 공화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드시려는 열렬한 애국의 세계가 비껴있다.

국토관리사업의 방향과 방도에 대해 활히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어 온 나라에 나무심기운동의 번바람을 불려일으키시는 한편 치산치수, 사방이재

공사를 계획성있게 내일도록 련명하게 이끄시었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국가비상설재방지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어지거나 침수되는 경우 그 에 대한 살균제와 영양액주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후대들에게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침범안 끄떡없을 금수강산을 물려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의 산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은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시기 위해

는 등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칙적 확대회의를 주도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자연재해를 현시기 국가 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의 하나로 정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열린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를 몸소 지도하시면서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여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해마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으로 태풍과 폭우가 들이닥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자 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제 인민의 위기대응의식은 높아지고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고있다.

각지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치산치수사업과 사방이재공사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태풍과 큰물에 의한 인적, 물적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불비한 요소들을 찾아 대책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리고있다. 태풍과 큰물에 대비하여 배수설비들의 만가동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관계구조물보수와 하천비담과기, 논밭물도랑치기와 물결제방보강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농작물들이 태풍과 큰물로 남

###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름들

공치수려한 대동강에는 꽃바구니모양의 섬인 통라도가 있다.

오늘 통라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통주장과 배주장, 모래리배주장까지 있는 통라도물놀이장, 립체를동영화관과 거울집, 웃음집, 미니골프장이 있는 통라도유희장, 풍등들이 재주를 부리는 통라도풍등관을 비롯하여 섬의 어귀저기에 꾸려진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이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통라도를 인민의 유희지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희를 반드시여 인민들

## ||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

### 봉사활동의 기준

땀젖은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미래상점을 상업봉사기지의 본보기답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늘여가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락을 찾으시는 그이시기에 미래상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에게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관념에 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요가 높은

### 식락의자를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작거리의 한 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식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탁의자가 인민들이 앉기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못한것을 대변에

은 상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 일꾼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 보시고서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꾼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고 그가 앉은 모습은 이고요모로 다시금 살펴보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하겠는데 직각으로 앉아야 어떻게 발을 편안히 먹을수 있었는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식당의 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편안한 다음에야 미학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세심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본사기자

## 통라도인민유원지

에게 이토록 훌륭한 통라도인민유원지를 마련해주시었다. 주체101(2012)년 4월말 이곳 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라도지구를 통라도인민유원지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고보아도 통라도인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통라도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유원지건설에서 사소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흠먼지바람이 날리는 험한 날에도 몸소 종이 명실도록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그리고 유원지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첫 «손님»이 되시어 인민

들이 라게 될 유희기구의 안정성까지 확인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한송이 또 한송이 피우신 꽃송이들이양 꽃바구니모양의 섬을 가득 채운 훌륭한 문화휴식터들에서 오늘 인민은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